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0. 12. 29.(화)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9	차미희*, 박인휘**, 박영미, 배성아, 유제욱, 오희아, 김우정, 남상택, 이정화	신태섭(간사)
불참인원	3	정혜중, 장남수, 송희준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제2호의안: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내규 논의(오희아 평의원 요구안)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제6기 대학평의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운영세칙 제2조 '대학평의원회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2월에 개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는 12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 나. 정혜중, 장남수, 송희준 평의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고, 이수린 차기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이희주 차기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리다.
- 다. 의장은 전체 평의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과반 출석으로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자문 및 심의

가. 자문사항

-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자문

(1) 의장은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화의료원, 학교 예산안 순서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안건 설명을 위해

이화의료원 및 본교 기획처 예산팀에서 배석해 주셨음을 알리고, 배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화의료원 배석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목동병원 재무팀장)

- (2) 전략기획팀장은 의료원 전체 현황 및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예산 대비 진료 실적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 (3) 박인휘 평의원은 의사직 대 간호부의 인적 구성비가 목동병원은 약 2:1, 서울병원은 약 5:1로 목동병원의 의사직 인원이 서울병원의 2배인 이유와 그럼에도 양 병원의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이어 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언제 결정되는지를 문의하다.
- (4) 전략기획팀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어제 발표날 것으로 예측하였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 일정이 미뤄진 상태라고 답하다. 이어 현재 서울병원은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의사직 부족으로 야간 당직까지 서는 등 의사직을 많이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 (5) 전략기획본부장은 의사직과 간호직은 법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고 서울병원의 경우 의사 1명 당 24시간 동안 5명의 간호직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목동병원에는 전공의가 있으나 서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각 의사들이 2~3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진료수입은 의사직에서 창출되는 것이므로 서울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임을 설명하다.
- (6) 박인휘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간호사 대비 의사직 숫자가 목동병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의하다.
- (7) 전략기획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이어 2021년부터 서울병원이 인턴 수련이 가능한 병원으로 승인을 받았고, 2022년부터 전공의를 받을 수 있어 전공의 4년차가 마무리 되는 2025년부터는 양 병원의 비교가 쉬울 것이라고 설명하다.
- (8) 유제욱 평의원은 수가는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지정이 임박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확인된 일인지를 질의하다.
- (9)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반납한 이후 3년 동안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956개 확대 발표가 되었고 이는 44개 병원 기준임을 설명하다. 병원별 점수는 이미 발표된 상태라 본교 의료원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개 병원의 이의 신청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로 발표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는 확실히 발표될 것이라고 답하다.
- (10) 유제욱 평의원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수입이 예산 목표 대비 미달된 것을 지적하

- 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11) 전략기획본부장은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전공의 파업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설명하다. 이어 11월, 12월은 예산에 맞춰가고 있고, 2월까지의 예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다. 의료진을 더 투입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되나 바로 실행되기는 어렵고, 내년 3월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병동 근무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병상을 폐쇄하는 등 환자를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 의료원의 실적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다. 통계적으로 다른 병원들의 경우 예산 대비 평균 15~18% 미달된 것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우리 의료원은 5% 미달로 예측되고 있어 이는 의료진의 노력과 고생의 결과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다.
- (12) 유제욱 평의원은 중증환자의 비율을 질의하다.
- (13) 전략기획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최소 비율 기준이 30%인데 비해 목동병원의 경우 53%라고 답하고,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면서도 44%를 유지했다고 말하다. 서울병원은 종합병원임에도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중증환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다.
- (14) 전략기획팀장은 의료원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이어 2021학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다.
- (15) 유제욱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부채비율이 본예산보다 증가된 이유와 리스를 제외하고 62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16) 전략기획팀장은 고정부채 은행장기차입금 원금이 2020년 51.5억 원에서 2021년 62.9억 원으로 11.4억 원 추가되었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원금 상환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다.
- (17) 유제욱 평의원은 전임교원 인건비가 학교로 전출되어야 하는데 병원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음을 전하며, 학교의 재정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 병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료원의 전략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 (18) 전략기획본부장은 2019년 양 병원의 종합검진을 통합하면서 인건비를 약 23억 원 줄였고, 실적은 35%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의료진을 1명도 총원하지 못하고 서울병원이 오픈되었으나 응급실 전국 평가 1위, 전국대학병원 신경과 1위, 로봇 수술 1위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다. 서울병원에 의료진이 좀 더 투입되어야 수익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양 병원을 특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5년 유예해 주신 전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다. 아울러 이화 구성원들에게 의료원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다.
- (19) 남상택 평의원은 동창들도 의료원 상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의 의견들

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하다. 이어 서울병원 예산 규모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질의하다.

(20)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년도 인력구조 및 등급 등의 수익구조를 고려하여 병상 규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된다고 설명하고, 의료진 1인당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답하다.

(21) 의장은 의료원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22)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다.

(23) 박인휘 평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포함) 75억 원 감소 및 교육부 대수입 152억 원 감소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24) 기획처장은 예결산에 대한 정보공시자료가 게시되면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으나 다른 주요 사립대의 경우에도 본교와 비슷하게 등록금 의존율 50~60%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을 인출하고, 긴축하여 지출을 집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25) 박인휘 평의원은 산학전입금이 15억 원 감소한 것이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과 관련하여 감소분이 어디에 증가로 반영되었는지를 질의하다.

(26) 예산팀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방식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교비 전입금 수입도 15억 원 감소, 직접 부담하는 비용도 15억 원 감소하여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하다.

(27) 김우정 평의원은 대학원 장학금 예산이 남지 않아 대학원생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연구학생경비의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조교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집행 감소분을 고려했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대학원의 경우도 학부와 같이 미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28) 기획처장은 대학원 장학금은 각 장학금 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삭감하지 않고 집행하였다고 답하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원 등록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장학금의 지급 대상(외국인 유학생 등) 자체가 축소되었고 전문특수대학원의 충원을 하락 등의 사유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답하다.

(29) 오희아 평의원은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문의하다.

(30) 예산팀장은 인센티브는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된다고 답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로 인하여 모든 대학에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및 통보함에 따라 본교 추경에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31) 오희아 평의원은 교원 채용이 예산보다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32) 기획처장은 교원의 정년퇴임 시점과 신규 채용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총원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발된 경우도 있어 예산 대비 감소하였다고 답하다.
- (33) 오희아 평의원은 학관 리모델링의 경우 시공사 업체 선정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63억 원을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문의하다.
- (34) 예산팀장은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비용과 공사비 집행 계획 등을 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35) 박영미 평의원은 원금보존기금에서 임의기금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임의기금을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문의하다.
- (36)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원금보존기금은 원칙적으로 이자만 사용하여야 하나 이번 년도와 같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별한 상황의 경우 원금보존기금의 특정목적기금에서 기금을 인출하여 임의기금으로 이관, 적립한 후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본교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다.
- (37) 남상택 평의원은 인출한 원금보존기금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38) 기획처장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의 인출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다. 다만 다시 기금을 모아 해당 목적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을 학교발전에 잘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다.
- (39) 오희아 평의원은 이전 회의록을 봤을 때 예전부터 기금 운용에 관한 지적이 있어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몇 년째 지속적으로 기금을 인출하는 상황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법인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40) 기획처장은 법인에서도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이어 학교는 최근 삼성자산운용과 OCIO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41) 배성아 평의원은 '기금인출 적립 내역 상세'와 '기금별 적립 인출 잔액'의 장학금 및 특정목적기금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42) 예산팀장은 '기금인출 적립 내역 상세'는 전체 기금 대상이고, '기금별 적립 인출 잔액'은 전체 기금이 아닌 기관기금을 제외한 학교사업 기금에 대해 표시하여 기금 잔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어 기획처부처장(예산)은 장학금의 경우 장학기금에서

-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목적기금에서 새로 모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답하다.
- (43)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다.
- (44) 오희아 평의원은 건축기금 중 수영장 용도변경에 의한 환경개선 공사 6억 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45) 예산팀장은 작년에 6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체육교육센터가 운영되지 못해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 예정인 것을 반영한 부분임을 설명하다. 기획처부처장(예산)은 6억 원은 수영장 공사비 총액이 아닌 본부가 매칭해 주는 금액이라고 부연하여 말하다.
- (46) 이정화 평의원은 토지매입비 20억 원과 관련하여 어디를 매입하려는 것인지 질의하다.
- (47) 예산팀장은 학교는 계속하여 교지를 확보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조건에 맞고 유리한 상황이 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예산으로 20억 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48) 박인휘 평의원은 이번 년도에 대학원 총원율이 높아졌는데 내년 대학원 등록금 수입에 차이가 없게 책정한 이유를 질의하다.
- (49) 예산팀장은 일반대학원 총원율이 상승한 부분은 반영하였지만 전문·특수대학원의 경우 2020학년도 총원율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답하고, 총원이 확대되는 경우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하다.
- (50) 남상택 평의원은 동창회의 입장에서 기금 잔액이 계속하여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 (51) 기획처장은 학교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기금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모으거나 적립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법인에서도 고민하겠지만 학교에서는 교육 부대사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 (52) 유제욱 평의원은 10년간 매년 기금이 줄어들어 7,000억 원 대의 기금이 6,000억 원 대로 감소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차기 총장님 및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이어 병원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균형이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다.
- (53) 기획처장은 좋은 의견에 감사를 표하고, 새 집행부에 현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지난주에 신임 총장님과 의료원장님이 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54) 오희아 평의원은 K-MOOC 사업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다.

- (55) 예산팀장은 관련 활동이 늘어날 계획을 확인한 후 지원하였다고 답하고, 기획처장은 K-MOOC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가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도 대응비를 늘려야 하는 형태이므로 이는 좋은 지출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 (56) 오희아 평의원은 수영장 용도변경, 단대건물이 없는 경우, 실험실습실 및 강의실 부족 (약대, 간호대 등) 등 학생들의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와 우려가 많은 상황임을 전달하다. 이어 학관 리모델링을 위해 2020학년도 추경예산 68억 원, 2021학년도 예산 177억 원을 인출할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렇듯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 확충 관련 요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다.
- (57) 기획처장은 학교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기존 수업 공간 및 연구 활동을 덜 침해하면서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학관의 재건축 부분을 통해 2,000여평의 공간이 확대될 예정으로 재건축된 공간은 인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과대학의 첨단 강의 및 활동 등이 이뤄지는 공용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하다.
- (58) 의장은 학교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나. 심의사항

□ 제2호의안: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위해 기획처에서 배석해 주셨음을 알리다.
- (2) 간사는 첫 번째 개정안은 2022학년도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편제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편입학 여석 80명을 활용하여 입학정원 40명 규모의 AI융합전공을 첨단학과로 신설하고 인공지능학사로 학위를 수여하는 안으로, 이와 더불어 2020년 1월 교무회의에서 2022학년도 편제조정안 의결 시 융합학부를 뇌·인지과학부로 학부명칭 변경을 승인한 바 있으나 AI융합전공을 스크랜튼대학 융합학부 아래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학부명칭을 재변경하는 건임을 안내하다. 이어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은 교육부 심의 사항으로 2021.2. 예정인 교육부 승인을 조건부로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3) 이어 기획처부처장(기획)으로서 첨단학과 신설(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추진계획 및 타교 현황, 본교 첨단학과 신설 준비 경과 및 신설 계획(안) 등을 보고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 (4) 유제욱 평의원은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당 전공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정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다. 2021학년도부터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 대한 대학 간 경쟁이 시작되는데 본교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중요하므로 학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 (5) 의장은 프라임 사업 이행으로 엘텍공과대학의 편제조정이 불가하여 스크랜튼대학에 해당 전공이 설치되었다면 프라임 후속기간 종료 후 엘텍공과대학으로 전공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다.
- (6) 기획처장은 많은 학교가 AI 관련 학과를 공대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이화여자대학교만의 특성과 강점을 갖는 AI융합전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AI 융합교육의 확장, 입학경쟁력 제고 등 현실적 요인과 장기적 플랜을 모두 고려하여 스크랜튼대학에 설치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AI융합전공이 다양한 학문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를 위해 스크랜튼대학에서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다.
- (7) 의장은 모든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임을 말하고, 관련 분야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대학에 유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이어 최근 서울대는 AI 관련 교수 초빙을 위해 겸직과 관련한 학교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며, 본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8) 기획처장은 우수 교원 확보와 관련하여 첨단학과 신설 준비 TFT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하다. 2022학년도 전공 신설 시 2023학년도부터 본격적인 AI 핵심 교과 강의를 위한 교원이 필요하고, 해당 시점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AI대학원에서 박사가 많이 배출될 예정이어서 우수 교원을 초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다. 이어 본교도 서울대와 같이 겸직에 대한 규정 개정을 교무처에서 검토 중이며, 최근 대학원 거버넌스 개편 시 융합교육·연구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융합교육 및 연구 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다. AI는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연구 Pool이 중요하므로 본교가 이러한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면 본교 평판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또 AI 분야의 우수 교원 및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다.
- (9) 박영미 평의원은 편입학 정원을 활용하여 신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학교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전하다. 이어 스크랜튼대학에 신설하는 취지에 맞춰 문이과를 모두 모집하는 것인지, AI Tech 트랙의 경우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차별화할 계획

인지 문의하다.

- (10) 기획처장은 AI융합전공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전공 등과 코어 과목은 겹칠 수밖에 없으나 3,4학년 심화 교과목에서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다. 학과가 신설되면 프로젝트 교과목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문과 AI를 융합한 실전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관련 분야 전문 교원들이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 (11) 오희아 평의원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및 뇌·인지과학전공 학생들이 AI융합전공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학과와 교과과정의 유사성 문제, 교원 부족 문제(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입학정원 약 100명, 재학생 약 500명이나 전임교원 5명 / 뇌·인지과학전공 신경공학 교과목의 경우 강의 교원이 없어 미개설)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다. 특히 유사 학과 신설에 따른 기존 학부/학과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사전 설명 없이 학칙개정안을 12월 24일에 공지하고 12월 29일에 바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다. 이러한 기존 신설학부/학과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견 수렴 없이 AI융합전공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12) 기획처장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및 뇌·인지과학전공 학생들의 메일을 이미 받아서 알고 있고, 학생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교무회의 및 교수평의회 의견 수렴 시에도 지적된 내용이라고 말하다. 단, 학교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및 뇌·인지과학전공도 그러한 학교의 발전적 방향에서 신설되었던 것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교원 충원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학교의 교원 충원 계획에 따라 최근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의 교원을 충원했고, 앞으로도 충원 계획이 있다고 말하다. 응용학문의 경우 기존 기초 학문과 공유되는 교과목이 많아 기존 리소스를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AI융합전공도 응용학문으로서 기존의 컴퓨터공학,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경영학부 등과 겸직제도 등을 통해 교원 및 커리큘럼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학과가 신설되어야 AI 융합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가 활성화 되면 우수 교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 발전이 가능함을 강조하다. 이어 AI융합전공이 신설되어도 기존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및 뇌·인지과학전공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학과 간에 윈윈할 수 있고, 해당 학부/학과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다.
- (13) 오희아 평의원은 현재로서는 AI만 전공하는 교원 Pool이 없어 겸직교수로 운영하는 상황일 수 있겠으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겸직교수로 운영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될 수 있음을 말하다.
- (14) 기획처장은 2023학년부터 지속적으로 AI융합전공의 전임 교원을 충원할 계획임을 전달하고, 최근 이공계열 학문적 트렌드에 따라 AI와 연계된 분야의 교원들을 AI융합전공 뿐

만 아니라 엘텍공과대학, 뇌·인지과학전공 등에서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관련 교원 확충으로 AI 융합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AI융합전공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15) 오희아 평의원은 학과 신설 프로세스 중 학생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16)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의견이 신설학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기존 학과에 대한 지원이 줄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기존 학과와 논의할 수 있는 별도 자리를 마련하도록 아젠다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단, 신설학과에 대한 간담회는 아니며, 기존 학과 지원 및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하다.
- (17) 박인휘 평의원은 AI융합전공의 학위명 '인공지능학사'와 관련하여 개별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기획처에서 결정한 것인지 질의하다.
- (18) 간사는 인공지능학사의 경우 학문의 성격, 타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첨단학과 신설 준비 TFT 위원회와 처장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였다고 답하다.
- (19) 간사는 전문영어, 자연과학과철학 연계전공 폐지와 관련하여 두 번째 학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연평균 학기별 재적생 수 10명 미만 및 학생 이수 수요가 저조한 연계전공은 전공 의견 수렴 후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하다. 해당 연계전공 폐지는 2020-1,2학기에 학생 사전 공지를 진행하였고, 2021-1학기부터 부복수전공 신청이 불가능할 예정이며, 단, 해당 연계전공 이수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운영된다고 말한다.
- (20) 의장은 두 건의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오희아 평의원은 첨단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학칙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다.
- (21) 의장은 학과 신설 시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간사는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다.
- (22) 의장은 재적 평의원 과반의 동의로 학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학생들이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과 교수평의회에서 제출한 장기 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다. 논의사항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내규 논의(오희아 평의원 요구안)

- (1) 의장은 제3호의안으로 대학평의원회 내규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희아 평의원의 안

건 상정 요청 및 지난 2020.5.25.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결정하였던 사항에 따라 3개의 주문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리다.

- (2)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수 확대 및 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회의에서 각 구성단위별로 의견을 모아 토론한 후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각 구성단위별 의견수렴 결과를 문의하다.
- (3) 남상택 평의원은 평의원 수를 확대하여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를 재조정할 경우 현행 단위별 구성 비율을 유지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동창회의 의견 수렴 결과를 지난 7월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고 전하며, 동창회는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단위로서 현행 비율의 동창 평의원 수는 24만 동창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 비율이라고 설명하다. 이어 타고 현황 검토 결과도 학생과 동창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동창 평의원의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다.
- (4) 유제욱 평의원은 현행 평의원 인원 및 비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이 많아지면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위한 인원으로서의 확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하다.
- (5) 박인휘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의견 수렴 결과 확대의 필연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달하다.
- (6) 오희아 평의원은 4개 구성단위가 참여하는 것이므로 학생 평의원 비율을 1/4 이상으로 구성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안하고, 의장은 해당 안은 별도의 안건이므로 필요한 경우 다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다.
- (7) 의장은 구성단위별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수 확대 및 비율 조정안에 대해 평의원 2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음을 알리다.
- (8) 의장은 2018년 이전 회의록 영구 게시 요구와 관련 기획처에서 변호사 법무자문 결과를 사전에 배부하여 평의원들이 내용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다. 이어 오희아 평의원에게 전 회의록 열람 후 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였는지 문의하다.
- (9) 오희아 평의원은 전 회의록 열람 결과 속기록이 아닌 회의록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2016년 회의록을 확인하였으나 정제된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우려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다. 학칙개정, 학과신설 등 학내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시 결정된 안건 중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사안들이 있으므로 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전하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므로 공개 게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덧붙여 발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
- (10) 의장은 변호사 유권해석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열람을 할 수 있으며, 한편 이전 회의록에서 비공개를 명시하였거나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면 현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이어 2017년 대학평의원회 논의 결과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음을 알리다.

- (11) 오희아 평의원은 2017년과 현재의 대학평의원회 기수가 다르므로 2020년에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어차피 정보공개청구로 모든 학생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열람한 회의록을 게시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학교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이어 일반 학생들에게 전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안을 의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다.
- (12) 박영미 평의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권한이 없으므로 모든 학생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규정에 따르면 비공개 사유의 해소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당시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수 없다고 설명하다.
- (13) 오희아 평의원은 학생만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하고, 비공개 사유를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14) 박인휘 평의원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이 기준이며, 변호사 법무자문 결과 전 회의록 공개는 의무화할 수 없고 대학평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려고 하였으므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다.
- (15) 오희아 평의원은 열람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으므로 결국 해당 내용 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하고, 박영미 평의원은 열람의 권한은 있으나 공개의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다.
- (16) 이정화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비밀 유지 의무조항이 있으므로 지켜야 함을 말하다.
- (17) 오희아 평의원은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나 학생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도 있어 공개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다.
- (18) 의장은 2017년 대학평의원회에서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므로 당시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2017년을 제외한 2013~2016년의 회의록만 공개하자는 의미인지를 묻다.
- (19) 오희아 평의원은 2017년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나 정보공개청구 권한이 모두에게 있으므로 열람한 회의록을 아카이빙 하여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하다.
- (20) 유제욱 평의원은 2018.5.부터는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있으므로 규정을 따라야 하고, 2018년 이전 회의록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내용과 같이 공개 여부를 의결하면 되는 사

항이라고 말한다. 열람한 내용을 본인이 공개 게시하는 문제는 다른 규정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견을 더 자유롭게 개진하려면 의결사항과 토론사항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심의 및 자문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존재와 위상을 생각해볼 때 과거 회의록까지 소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다.

- (21) 오희아 평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비공개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학내 구성원들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교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만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회의록을 더욱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 (22) 박인휘 평의원은 전 평의원들의 의사 확인 없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고, 2016년 사안에 대한 공개가 학교로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전한다.
- (23) 오희아 평의원은 2018년 이전 회의록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유제욱 평의원은 해당 규정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다.
- (24) 의장은 2018년 법령 개정 이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영구적으로 게시하는 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재적 평의원 2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음을 알린다.
- (25)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내규 논의와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안건 상정 요청 서식을 이용한 안건 제출,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 등의 예시를 제시한다. 원활한 대학평의원회 운영을 위해 내규 개정에 대한 평의원들의 제안을 부탁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 (27) 오희아 평의원은 동일 회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하고, 의장은 기수를 의미한다고 답한다.
- (28) 박인휘 평의원은 기획처에 다른 학교의 대학평의원회 내규 또는 세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 (29) 의장은 타교 사례를 참고하되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학교의 회의 운영에 적합한 내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 (30) 오희아 평의원은 기수가 바뀌어 의장이 변경되는 경우 내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이어 동일 회기 동일 안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 한 차례 회의로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31) 의장은 해당 내용은 예시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대학평의원회 내규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번 회의 논의를 종료한다.

라. 기타사항

- (1) 의장은 제6기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임을 안내하고, 1년(학생) 또는 2년의 임기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다.
- (2) 2021년 1월 1일자로 제7기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차기 회의는 위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자문 및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12월 29일

의 장 차 미 희

차미희 